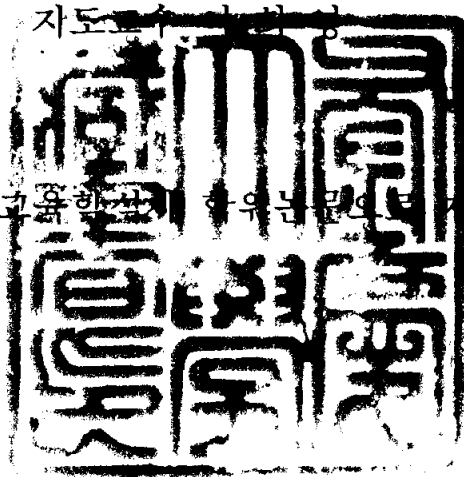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문영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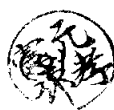
문영란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주 심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위 원 교육학박사 원 효 헌



위 원 철학박사 이 희 영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가족체계이론	8
2. 진로결정수준	16
3. 가족체계와 진로결정	30
 III. 연구 방법	33
1. 연구 대상	33
2. 측정 도구	33
3. 연구 절차	36
4. 자료 처리	36

IV. 결과 및 논의	37
1. 결과	37
가.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수준 분포	37
나. 가족응집성 유형과 성별과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39
다. 가족적응성 유형과 성별과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41
라. 가족체계 유형과 성별과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44
2. 논의	47
V. 요약 및 결론	50
1. 요약	50
2. 결론 및 제언	52
참고 문헌	54
부 록	63

표 목 차

<표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하위척도별 신뢰도	34
<표 2>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점수 분포	37
<표 3> 가족체계 유형별 분포	38
<표 4> 진로결정 및 진로확신 점수 기술통계량	38
<표 5> 성별×응집성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39
<표 6> 성별×응집성 유형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40
<표 7> 성별×적응성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42
<표 8> 성별×적응성 유형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42
<표 9> 성별×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44
<표10> 성별×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45

그림 목 차

[그림 1] 성별과 가족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40
[그림 2] 성별과 가족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확신수준	41
[그림 3] 성별과 가족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43
[그림 4] 성별과 가족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확신수준	43
[그림 5] 성별과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45
[그림 6] 성별과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46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Family System Typ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Level**

Young Ran M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family system typ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for the study;

First,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family cohes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gender?

Second,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family adaptabilit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gender?

Third,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family system typ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gender?

The participants were 396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located in Pusan.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Scale(FACES) and Career Decision Scale(CDS)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wo-Way ANOVA and Duncan Tes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cohes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gender and gender x family cohesion type. And gender and family cohesion type had no direct and interaction effects on career conviction level.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adaptabilit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gender and gender x family adaptability. And gender and family adaptability type had no direct and interaction effects on the career conviction level.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system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gender and gender x family systems type. And gender and family systems type had no direct and interaction effects on the career conviction level.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some changes are needed in career counseling practices for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better fit each student's different career need. Finally,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with comments on limitations of this stud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란 한 개인이 생애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김계현, 1995),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축적해 놓은 과거의 직업적 경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쌓아가야 할 행로라는 의미도 내포하는 미래지향적인 용어이다(진미석, 1999). Maslow는 ‘행복한 사람의 특성’ 중 첫 번째로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서 선택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꼽고 있다(유광찬, 1998).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아실현의 수단일 뿐 만 아니라 삶을 통해 가장 신중해야 할 과정이며, 한 개인의 가치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사회 성원을 선발·배치하는 일은 인력활용이나 사회·국가발전을 위한 효용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 인해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거나 소멸되기도 하여 직업의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 문제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김봉환, 1997; 이재창, 1995;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2)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성과 진학, 진로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귀영·박미진·변희준, 2001;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2002)에 의하면, 대학생활 내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이고 학교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문제 역시 앞으로의 진로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고민하는 진로에 대한 차원은 진로에 대한 결정성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이유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의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진학지도와 진로지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자아를 탐색하며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요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진학 지도와 더불어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교사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특성이나 능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의 가치 기준에 따른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나 크게 연령, 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지능, 자아개념, 내외통제성, 일역할 중요도,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개인 심리적 변인 및 가족관련 변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이중 가족 관련 변인이 최근에 학자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진로선택에 있어 가족의 역할은 최근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몇몇 진로선택이론(Roe, 1957; Super, 1957)에서 강조되어 왔다. 가족관련 변인은 구조적 변인과 과정 변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구조적 변인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상태 및 부모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이희영, 2003).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결혼상태와 같은 가족배경 변인이 진로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Lee,C.C., Hollander,E.K. & Krupsaw,M., 1986; McDonald & Jessell, 1992)이 지적했듯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상태와 같은 가족배경 변인들은 교육이나 상담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정보는 교육 및 상담 실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울러, 가족의 구조적 변인에 대한 연구도 진로 결정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부모-자식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자식이 지각한 부모의 영향만을 보여준다는 제한점이 있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연구된 가족과정 변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을 들 수 있다.

한편 1950년대 이후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아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인 체계로 보려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출현한 가족체계이론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이나 구성원간 일대일의 특정한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에 중요성을 두면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전체와 가지는 관계에 초점을 둔다. 아울러 가족체계는 가족내 구성원간에 그리고 가족 밖의 사회체계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맺어 나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유지·발전된다(심혜숙·윤순임, 1995).

가족체계의 내·외적인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특성은 가족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Olson, Sprenkle & Russell, 1979, 1983; Beaver, Hampson & Hulgus, 1991)과 가족기능을 진단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들(Moos & Moos, 1981; Olson et al., 1979, 1983)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 모델들이 사용하는 구성개념 안에는 두 가지 유사한 면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개인의 개별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체계의 역할, 규칙, 전략과 관련된 변화요구가 발생했을 때 체계가 변화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김수연, 1998). Olson 등(1979)은 전자에 관한 개념을 가족응집성으로, 후자의 개념을 가족적응성이라는 용어로 발전시켜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제안하였다.

복합순환모델은 응집성 정도에 따라 유리, 분리, 연결, 속박의 4수준으로 분류되며, 적응성 정도에 따라 경직, 구조화, 융통, 혼돈의 4수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4가지 범주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조합하면 16가지의 가족체계유형이 나오는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을 ‘균형잡힌 가족’,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중 한 차원이 균형을 이룬 가족을 ‘중간 수준의 가족’,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차원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을 ‘극단적 가족’ 이라고 한다(Olson et al., 1983).

복합순환모델이 제시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이 모델의 타당성을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진로결정이다.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 결과(김민경, 2002; 맹영임, 2002; Hesser, 1984; Eigen, 1987; Alger, 1993)는 대체로 복합순환모델의 기본 가정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맹영임(200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균형 가족 집단일수록 진로정보 및 자기이해 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일

반화된 미결정 요인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수준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 가족체계유형과 진로결정 요인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김민경(2002)의 연구에서는 경직 집단의 진로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혼돈된 가족일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았으며 심리적으로 가족간에 유대감이 적절하게 형성된 연결 집단과 가족간에 유동적인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융통 집단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복합순환모델이 진로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모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합순환모델을 진로결정과 관련시킨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진로결정의 주요한 변인을 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 가족체계유형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가.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수준과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나.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수준과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맺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며, 응집성 정도에 따라 유리, 분리, 연결, 속박 네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Olson, 1983). 본 연구에서는 김수연(1998)의 연구에 따라 분리를 제외한 유리, 연결, 속박의 세 수준으로 가족응집성을 분류하였다.

나. 가족적응성

가족적응성은 지도력,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에서의 변화의 양을 말하며, 적응성 정도에 따라 경직, 구조화, 융통, 혼돈 네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Olson, 1993). 본 연구에서는 김수연(1998)의 연구에 따라 구조화를 제외한 경직, 융통, 혼돈의 세 수준으로 가족적응성을 분류하였다.

다. 가족체계유형

가족체계유형은 네 가지 범주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조합하여 16 가지 가족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을 '균형 잡힌 가족',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중 한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룬 가족을 '중간수준의 가족',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을 '극단적 가족'이라고 한다(Olson et al, 1983). 본 연구에서는 김수연(1998)의 연구에 따라 각 세 가지 범주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조합하여 나오는 아홉 가지 가족유형 중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두 가지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을 '균형을 이룬 가족', 한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룬 가족을 '중간범위 가족', 두 가지 차원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을 '극단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라.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수준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한다. 진로미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순란(1999)의 연구에 따라 진로미결정의 두 가지 하위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하나는 '단순한 진로미결정'으로서 상황적으로 혹은 발달과정상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undecided)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만성적인 무결정'으로서 생활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pervasive indecisiveness 혹은 chronically indecisiveness)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체계이론

가족을 하나의 자연적인 사회체계로 보는 입장은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Buckley(1967)에 의하면 체계란 인과관계 조직에 직·간접으로 관계된 구성요소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즉, 체계란 공변하는 구성요소 또는 단위들의 실체로서 각 구성요소 또는 단위들은 다른 단위들의 상태에 의존 혹은 억압되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전체, 다시 말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는 상호의존적인 각 부분들의 합과는 다르므로 각 부분들 사이에 진행되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체계란 어떤 위계질서를 지닌 여러 하위단계의 체계들로 구성되지만 모든 체계는 조직을 이루어 균형 또는 항상성을 추구하게 되며, 가족도 이러한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Goldenberg & Goldenberg, 1991).

Minuchin(1974)은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로 볼 때 가족구성원 각자는 하나의 하위체계가 되며, 그 다음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과 같은 2인 가족관계가 또 다른 하위체계를 이루고 각각의 하위체계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되는 것이 가족체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은 각자 여러 하위체계에 소속되어 소속된 체계에 따라 다른 권한 행사와 다른 기술을 습득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게 된다.

특히 가족체계는 하위 체계들 간에 상호의존성이 높아 하위 체계들 간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전체 체계

의 안정이 유지된다(Foley, 1979). 그리고 가족체계는 개방체계로 그 체계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체계와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상태를 유지하려 하는데 이처럼 어떤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경향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족체계는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체계를 스스로 유지하는 적응성을 지니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가족체계이론가들은 이러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양한 용어로 기술하였지만 Olson, Sprenkle 및 Russell(1983)에 의해 가족체계의 정서적 차원을 가리키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과 조직적인 권력차원을 나타내는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그리고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사소통을 촉매차원으로 규정하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두 요인을 기초로 가족체계를 유형화 하였다.

가. 가족응집성

가족체계이론의 연구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가족체계의 뚜렷한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전귀연, 1993).

가족치료이론가들은 가족응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Bowen(1965)은 미분화된 가족자아덩어리(family ego mass)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구성원이 정서적으로 응집되는 정서적 일체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성숙과 자아실현은 가족과의 미해결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Hess와 Handel(1967)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인간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분리와 연결을 제시하였고, 이 두 개념은 가족생활의 역동적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Hess와 Handel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킨 Broderick과 Smith(1979)는 경계를 가족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정의했다.

Minuchin, Montalvo, Guerney, Rosmane과 Schumer(1967)들도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밀착-과잉분리(enmeshed-disengaged)라는 개념으로 가족체계를 고찰하였다. 경계란 하위체계들 사이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하위체계의 경계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를 결정하는 규칙으로 경계가 분산되어 있어 하위 체계들 간에 서로 심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가족은 밀착되어 있다고 보며, 반면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하위 체계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의 경우에는 과잉분리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체계는 밀착과 과잉분리라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점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며 최상으로 기능하는 가정은 가족구성원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우리라는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의식을 잃지 않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밀착이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생활에 대하여 관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구성원 중 하나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면 배신행위로까지 간주한다고 하였다.

Minuchin, Rossman과 Baker(1978)도 가족에의 강한 소속감은 구성원들의 모든 경험을 지배하여 가족과 분리된 자아의식의 발달을 저해하고, 구성원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은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하

위체계간의 경계가 미분화되고 약하며 쉽게 뒤바뀔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일체감과 공유감 때문에 개인적 자유도 없다고 하였다. 반면, 과잉분리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가족들이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Rosenblatt와 Titus(1976)는 가족응집성을 결합-분리의 연속체로, Stierlin(1974)은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설명하였으며, Beaters(1977)는 Stierlin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심적 가족양식과 원심적 가족양식으로 가족응집성을 설명하였다. 구심적(centripetal)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집착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원심적(centrifugal)이란 가정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용이성 정도를 가리킨다. Beavers(1977)에 의하면 역기능적이면서도 구심적 가족양식을 지닌 가정의 자녀들은 바깥 세상보다 가정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원심적 가족양식을 지닌 가정의 자녀들은 바깥 세상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동료집단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며 이러한 가정에서는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기 전에 가정 밖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였다.

Olson 등(1983)은 가족응집성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여 가족관계를 설명하면서 응집성이 낮은 순서부터 가족관계를 과잉분리(disengaged) 집단, 분리(separated) 집단, 연결(connected) 집단, 밀착(enmeshed) 집단으로 분류하고,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밀착집단은 가족구성원이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이 너무 강하여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는 반면, 응집성이 낮은 과잉분리

집단은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이 낮아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응집성 수준이 적당할 때만이 가족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이론가들은 항상성(homeostasis)의 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변화지향적(morphogenic) 속성보다는 안정지향적(morphostatic) 속성 또는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전귀연, 1993). Jackson(1995)은 정신분열증 환자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 내에는 어떤 균형이 있으며 이 균형 때문에 상호작용적 체계가 조직된다고 보고하였으며, Haley(1962)는 어떤 가족이든 안정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면 다른 유기체는 그 변화를 감소시키고 수정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상성이란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원리로 보기보다는 불안정을 조정하거나 체계 내에서의 변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Ackerman(1958)은 항상성을 주어진 체계 내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원리로 보았다. 그리고 항상성 유지란 가족체계가 변화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융통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Ackerman, 1966).

또한 Kantor와 Lehr(1975)는 가족의 상호작용유형이나 규칙의 확립뿐만 아니라 확립된 유형이나 규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족적응성으로 보고,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또

한 가족적응성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엄격하고 전체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족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특징을 지닌 가족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가족적응성을 가족역량과 관련지어 설명한 Beavers, Hampson과 Hulgus(1986, 1990)는 엔트로피(entropy)라는 체계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체계를 설명하면서 가족 체계의 역량 수준에 따라 각 가정을 연속선상에 배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엔트로피란 어떤 사물이 혼란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경향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로, 미조직화 되고 미분화된 상태로 나아가려는 체계의 경향을 뜻한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낮은 가정일수록 질서가 정연한 가족이며, 엔트로피가 높은 가족은 일관성 없는 가족규칙에서 오는 혼돈과 권력구조의 변화, 왜곡된 의사소통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Beavers 등은 가족역량을 부정적 혼돈의 연속체(negentropic continuum)로 정의하고 한 쪽 끝에는 가장 융통성이 있고 적응성이 높으며 목표지향적인 체계를 두고, 또 다른 끝에는 가장 융통성이 없고 미분화되고 비효율적인 체계를 두어 가족 기능의 수준에 따라 심한 역기능적 가족, 약간 역기능적 가족, 최상의 가족으로 나누었다.

Olson 등(1979, 1983)은 적응성이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하여 가족적응성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균형이 잘 이루어진 가족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민주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도력과 분명한 역할 및 규칙이 확립된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가족체계를 경직된(rigid) 집단, 구조적인(structured) 집단, 융통적인(flexible) 집단, 혼란된(chaotic) 집단으

로 분류하고 가족응집성 수준과 마찬가지로 중간수준에 속하는 가족체계가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가족체계 유형

가족기능에 대한 몇 가지 모델 중 Beavers의 체계모델(systems model: BSM)과 Olson의 복합모델(circumplex model: OCM)은 가족기능에 관한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분류하기 위한 유형론을 제공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주목받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Olson의 복합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기능에 대한 Olson의 복합모델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가족기능에 관련된 문헌에 나와 있는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귀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Olson 등(1979, 1983)은 군집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한 양방향성의 두 요인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그리고 단방향성의 세 번째 요인으로는 가족의사소통을 결정하고, 이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가족과정 또는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상정하여 상호 조합을 이루는 유형론적 모델인 복합모델을 개발하였다.

Olson 등이 결정한 주요한 양방향성의 두 요인 중 관계요인인 가족응집성 요인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로 외부세계에 대한 가족경계선의 침투성과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평가하는 것이며,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가족기능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요인으로 변화와 유연성요인인 가족적응성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가족체계의 변화와 유연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너무 높거나 낮으면 건전하지 못한 가족체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방향성의 세 번째 요인인 가족의사소통은 그 결과에 따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변하게 되므로 축배차원으로 규정하였다.

Olson 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두 요인을 기초로 가족체계를 16가지로 유형화하였으나 정상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에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에 따라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양극단에 속하는 네 가지 유형의 가족(매우유통/과잉분리, 매우유통/매우연결, 경직/과잉분리, 경직/매우연결)은 극단가족, 한 요인은 극단적이지만 다른 요인은 중간에 위치하는 여덟 가지 유형의 가족(매우유통/분리, 매우유통/연결, 유통적인/분리, 유통적인/연결, 구조적인/연결, 경직/분리, 경직/연결)은 중간범위가족, 두 요인 모두 중간에 속하는 네 가지 유형의 가족(유통적인/분리, 유통적인/연결, 구조적인/분리, 구조적인/연결)은 균형가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거나(Olson, 1985), FACESⅢ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Olson et al., 1992).

이와 같은 Olson 등의 복합모델의 특징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기능간의 관계를 양방향성(곡선적; curvilinear)으로 설명하면서 응집성의 측과 적응성의 측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역기능을 지닌 가족으로, 중간 부분에 속한 가족일수록 건전한 가족으로 분류하지만 가족체계의 각 차원에서 특히 가족응집성 차원에서 극단적인 수준의 가족체계를 지닌 가족일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체계를 인정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족기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유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구성원의 상태나 기대가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므로 체계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진로결정 수준

가. 진로결정 수준의 개념

진로결정 수준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 규정은 왜 어떤 사람들은 대학 전공이나 미래의 진로 선택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갖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Wanberg & Muchinsky, 1992).

Walsh(1987)에 따르면, 진로결정은 개인의 발달 과정의 하나이고, 개인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회학습 이론가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유전적 재능과 자질, 환경 조건과 다른 사건들, 학습 경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진로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이론화하였다. 김충기(2000)에 의하면 개인의 성장과정은 고등학생들의 취업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나아가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미결정에 관한 발달학적 접근은 학생들이 매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중요하고 장기적인 진로결정을 하라는 요구를 맞닥뜨린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발달 이론가들은 진로선택 과업이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 과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주장해왔다(Kathleen, 1994). Titley와 Titley(1980)는 대학 신입생들의 74%가 전공을 선택할 때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조사에서 Gelso와 Sims(1968)의 연구에서 표집의 21%가 지원한 시기와 등록하는 시기 사이에 전공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kenson과 Beecher

의 연구에서는 61%의 대학생들이 입학 전과 4학년생이 되는 사이에 계획을 바꾸었고, 35%가 고등학교 때는 몰랐던 분야에서 졸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Scott, Fenske와 Maxey(1974)는 2년제 대학의 2928명의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51.2%가 조사하는 18개월 동안 진로선택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변화는 대학 졸업이후로도 계속되었다. Solomon(1977)은 50%의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을 떠난 이후 진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알아냈고 Norwood(1990)는 1978~1990사이에 4명중 1명의 졸업생들이 그들의 실제 전공분야에 상관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Salomone(1982)은 25세 이하의 젊은 성인들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영향에 직면해서 진로미결정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므로 그들을 미결정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실수이며, 진로미결정이란 25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Harman(1973)의 연구에서 남녀 학생 모두의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 점수가 정상 수치 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로 정체감의 부족은 아마도 성격 문제와는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appeto(1977)는 경영학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 후 5개월 동안 고용되어 있거나 취업하는 것들 중 한 분야에서 교양학과 졸업생들보다 어떤 특징적인 이점도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Grites(1981)는 이 발견이 대학 전공을 빨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을 지지해 줄 방안에 관해서 많은 제안을 했고 그들이 진로결정을 미룸으로 인해서 잠재적 이점을 가진다고 지적했다(Grites, 1981). 아울러 진로미결정을 창조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았는데 National Merit Finalists의 연구에서 Holland 와 Nichols(1964)는 진로미결정이 관심사를 좁힐 수 없는 좀더 창의적이고 지적으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진로미결정이 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지는 않았다. 미결정을 미성숙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Williamson(1939)의 견해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부정확성의 원인으로 두려움, 적성의 부족, 친구,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선택한 직업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감정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Fuqua와 Hartman(1983)은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이 내면의 심리적 기능 장애 문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Crites(1981)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 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그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구성 요소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 요소 부족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족 요소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 과정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어온 구성 개념(Slaney, 1988)으로 그 중요성 때문에 진로심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영역의 하나가 되었다(Betz, 1992; Fouad, 1994; Meier, 1991; Tinsley, 1992).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과 관련된 연구는 진로미결정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Miller(1971)나 Campbell과 Cellini(1981)의 연구에서처럼 경험적 실험 없이 이론적 논의만 이루어진 연구이거나 또는 진로미결정 척도 개발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독립적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Tinsley(1992)가 진로미결정 연구는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미결정 구성 개념을 위한 이론적 맥락을 개발하려는 노력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미결정 연구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Gati, Krausz, & Osipow, 1996).

또한 진로미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적 접근이 서로 다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시도되어 왔다. Bordin과 Kopplin(1973)은 심리역동적 이론을 통해 외적으로 관찰된 증상 대신 내적 원인에서 진로미결정의 문제를 명료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Super(1953)나 Osipow와 Fitzgerald(1996)는 발달적 접근으로 진로미결정을 진로 성숙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진로발달의 정상적인 단계에 대응하는 결정 과정에서 지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Roe(1956), Salomone(1982), Holland(1985)는 직업흥미 이론으로 개인이 진로결정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흥미의 구체화 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은 진로결정 과정의 주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류는 종합성과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어 특정 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임상적 연구에서도 오직 한 부분만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후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임상적 연구들은 진로미결정 가운데에서도 개인차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척도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미결정에 관한 초기 연구들(Crites, 1969; Goodstein, 1965; Tyler, 1961)이 미결정 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미결정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다고 시사함에 따라 그 이후의 연구들은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데 주력하였다.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결단성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상태와 미결정상태로 구별하는 데 있어 미결정 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발달단계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정된다. 이들은 명확한 진로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압박감이나 스

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Salomone(1982)에 의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 직업의 세계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정의 과정을 연기한다는 것이다.

반면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 즉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선택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alomone(1982)은 이들이 높은 수준의 불안정, 불안, 좌절과 불명확한 자아정체감,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외적 통제성,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였으며, Hartman, Fuqua와 Hartman(1983)은 이런 상태를 만성적인 미결정이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유형 분류에 대해 Slaney(1988)는 잠정적으로는 유용해 보이지만 이후 두 구인에 대한 타당성과 차별성을 설명해 주는 연구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유형 분류가 진로선택이 명료화되지 않은 개인들을 분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Wanberg & Muchinsky, 1992).

그러나 미결정과 우유부단함과의 차이를 구별하려는 노력의 결과 미결정은 결정에 다다르기 위해 개인이 거쳐야 하는 발달적 단계로 보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은 결정에 이르는, 결정을 수행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로 이끄는 상태로 보게 되었다. 반면에 진로미결정의 또 다른 차원인 우유부단함은 인간 성장과 발달의 보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일반화된 개인적 특성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진로 불확실이 진로미결정이나 우유부단이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과거를 회고해보는 것으로, 만일 어떤 개인이 진로 혹은 다른 결정을 내리는 데 곤란을 겪는 일이 반복적일 때는

우유부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유부단하지 않을 사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생애에서 많은 결정의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행동을 필연적으로 보여주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진로미결정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일차원적인 구인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인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Hartman, Fuqua, & Jenkins, 1986). 김봉환(1997)은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의 선택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진로결정 수준이란 한 개인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진학,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 즉 수준을 지칭하고 있다.

나. 진로결정 이론

1960년대를 거치면서 심리학적 의사결정이론에 입각한 진로결정 수준 이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이론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분석 및 설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Jepsen & Dilley, 1974). 진로결정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rank Parsons(1909)는 직업 선택을 일생의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라고

보면서, 특성요인 이론의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진로결정이 개인의 잠재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김충기, 2000). 직업선택은 자아의식과 직업에 관한 지식을 통해 자아와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연결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Harris, 1995).

Williamson(1939)은 진로미결정, 불확실한 결정, 자신의 흥미와 적성간의 불일치한 경우를 설명하였다. Bordin(1946)은 Williamson(1939)의 연구에 불안의 요인을 추가하였으며, Crites(1981)는 진로미결정을 하나의 문제로 제시하면서 진로상담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Campbell과 Cellini(1981)는 성인에 대한 진로상담의 주요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청소년기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1950년대 진로발달 이론은 Ginzberg, Ginburg, Axelrad(1951)와 Herma(1951) 그리고 Super(1957)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그들은 진로선택을 일련의 발달 단계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그들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단계를 중시하고, 일단 결정이 되어도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Harris, 1995). Ginzberg와 동료들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하나의 발달과정이며, 그것은 한번의 결정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결정들이다. Ginzberg이론은 그 일련의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구분하였다. Super(1957)는 한 개인은 일생에 걸쳐서 9단계에 걸친 진로결정 시기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결정은 환경적 요소와 개인결정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진로발달은 감정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기술 발달의 역동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발달주의자들은 진로선택이론의 영역에서 Holland의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Holland의 접근법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행동 양식 또는 인성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가지 종류의 환경뿐만 아니라 6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직업성취, 안정성과 만족은 한 개인의 성격과 직

업 환경 간의 일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Holland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진로 안내서는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들이 개발한 도구는 ‘Strong Campbell의 흥미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나의 직업 상황과 탐색 (Self-Directed Search)’ 과 같은 직업상황에 관한 측정 도구이다. 이러한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측정 도구들의 개발로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진로결정은 그 과정이 복잡하며 각각의 개인에게 다르고, 일회적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견해가 이론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Gelatt(1962)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운 미래, 중간 정도의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결정간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Gelatt(1962)는 이러한 결정에서 좋은 선택이란 각각의 가능한 의도와 연관된 성공 가능성이 큰 선택, 성과의 바람직함을 고려한 선택, 몇 가지 평가 기준의 바람직한 적용에 의한 행동을 제시한다. 이 3단계 선상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의미하였다.

Krumboltz(1982)는 훌륭한 선택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였는데 진로결정의 최종 평가는 그 결정의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하여, 발달주의자들은 개인의 사소한 잘못도 진로미결정이 될 수 있으며,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그 개인의 결정 과정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그 기회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개인마다 진로결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진로결정 과정을 연구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인의 진로결정 과정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진로미결정의 새로운 영역과 진로결정 수준의 부족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LoCascio(1964)는 진로미결정을 진로에 대한 지식·기술·인식의 부족이나 과업 수행에서의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직업선택 과정에서의 불일치로 보았다. 이 진로결정 이론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바, 그는 진로결정의 ‘과정’에 대해 보다 강한 심리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진로행동을 설명하였다. 진로결정의 과정과 단계를 포함하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Tolbert, 1980).

진로결정 이론은 전통적으로 다음의 2가지 모형을 취하였다(Pitz & Harren, 1980). 첫째는 규범적 진로결정 모형으로, 어떻게 최상의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골격을 시사하였다. 즉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최상의 진로결정을 위한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는 기술적 진로결정모형으로써 그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개인이 종사하고 싶거나 종사하게 될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 인터뷰, 질문지 그리고 자기보고 등의 과정을 거친다(Mitchell & Beach, 1976). 두 가지 모형으로 나뉘어지는 진로결정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모형의 통합적인 전개에 의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채기, 1991).

학자들의 진로결정 이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이론은 진로선택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출발된 개념으로서 한 사건의 분석이라기보다는 개인차를 지닌 과정의 연속이며,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둘째,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은 아직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며,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진로미결정 상태를 측정·분석·탐구하여 바람직한 진로결정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문승태, 2002).

다. 진로미결정의 측정

진로미결정은 주로 학생들의 진로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오면서 진로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지만 전 생애에 걸쳐 진로 결정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진로미결정은 생애 전반에 걸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진로결정 문제에 직면하던 것이 생애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된 진로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각 전환기에서는 잠재적 진로미결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결정에 대한 인식은 진로결정 문제 측정 및 상담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진로 상담가에게 비추어진 대학생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진로미결정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미결정의 본질 및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진로미결정을 측정해야 할 때에는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결정수준에 관한 2~3가지 질문으로 결정 상태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진로미결정 측정에 관한 관심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확산되었다. 이 때는 많은 개인들이 여러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였고, 그 결과 종종 미결정이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보다 좋은 상담 결과로 평가받기 위하여 미결정의 감소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것이 진로미결정 측정에 대한 표준화된 도구 개발을 이끄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Holland이론이 이 시기동안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이론은 1950년대 이후 1997년까지 수정을 거듭해 오고 있다. 개인의 성격차원과 개인의 선택간의 불일치의 결과는 결정에 대한 무능력이 되기 쉽다는 그의 이론은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이상적인 방법을 기술해 주고 있다.

진로상담에서 개인이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

기 위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행동이 미결정이나 우유부단이나의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미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상담은 주로 관련된 진로 및 개인 정보의 수집, 분류, 평가의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 인지기반 접근법이였다. 우유부단한 개인을 위한 상담은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성격을 검사하는 전통적인 치료 접근법을 모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특히 우유부단한 개인을 돕는데 진로 상담과 심리치료가 많은 공통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개발되고 있다(Hackett, 1993).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에는 Holland이론이 잠재적으로 공헌하기는 하였지만 이 노력을 이끌어 나갈 유용한 이론적 맥락이 없었다. Holland이론은 개인들을 진로현장에 대응되는 다양한 성격유형으로 나누었지만 둘 혹은 더 많은 유형에 거의 같은 비율로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결정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개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유형과 사회적 유형에서 동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두 유형을 만족시켜주는 작업현장을 찾기 힘들어 미결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유형에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한 영역을 선택하는 결정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세 번째 가정은 모든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 영역에의 관심 때문에 역시 결정하기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끝으로 다양한 능력을 지녀 많은 진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 역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초기 연구는 Holland와 Holland(1997)의 연구로 이 연구에서 그들은 진로미결정은 개인 및 진로정체감 부족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진로미결정 측정법을 더욱 정교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Holland 등(1980)에 의해 개발된 MVS(My Vocational

Situation)는 진로의사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진단하는 척도로,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목표·흥미·재능수준을 측정하는 진로정체감, 개인이 갖고 있는 진로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직업정보, 개인이 자신의 진로결정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 있는 장애목록을 제공해 주는 진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Osipow, Carney, Winer, Yanico, 그리고 Koschier(1976)는 진로미결정 측정도구인 CDS(Career Decision Scale)를 개발하여 진로미결정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진로미결정 수준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Harren(1976)은 Tiedeman과 O'Hara의 진로발달단계를 이용하여 진로미결정 측정도구인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Making)을 개발하였다. 이후 Jones(1989)는 CDP(Career Decision Profile)를, Chartrand와 Robbins(1990)는 CFI(Career Factors Inventory)를 개발하여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Gati, Krausz와 Osipow(1996)는 CDDQ(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의 이론적 분류를 시도하여 진로의사결정곤란점수의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진로의사결정곤란을 의사결정과정 전에 일어나는 것과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을 시도하여 의사결정과정 전에 일어나는 곤란에는 동기부족, 우유부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준비도 부족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역기능적 신화에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곤란 등이 포함된다. 의사결정과정 중에 발생하는 곤란은 자신, 직업, 정보획득, 그리고 진로의사결정과정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부족이 포함되며, 모순된(일관성 없는) 정보에는 비현실적인 정보, 내적 및 외적 갈등으로부터 나온 문제들이 포함된다고 분류하였다.

진로미결정이 상태라기 보다는 특성인 개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최근에는 진로문제 뿐만 아니라 주요 생애문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적용하기 위해 우유부단에 관한 연구에 노력을 쏟고 있다.

사실 미결정으로부터 독립된 실재로써 우유부단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첫 번째 문제는 적절한 준거집단 명료화이다. 예를 들면, 진로영역에서 일시적인 문제에 미결정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일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CDDQ(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와 같은 척도로 측정되는 반면 다른 일부 사람들은 고정적인 성격요인에서 보다 많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미결정과 우유부단이 언 듯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개인이 언제 미결정과 대비되는 우유부단한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구별할 수 없다면 미결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측정하는 도구 고안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Haraburda(1998)는 우유부단 측정 문제를 검증하여 생애영역에서 다양한 우유부단을 다룬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Haraburda(1996, 1998)의 연구에서는 우유부단 측정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려고 시도했으며 처음의 결과들을 고무하는 결과를 낳았다. Haraburda는 미결정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 즉 진로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상황을 이용했다. 그의 첫 번째 연구(1996)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친 우유부단의 시험적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연구(1998)에서는 그의 척도인 Multi-Domain Decisiveness Scale을 사용하여 갈등해결과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결정수준을 검증했다. 이 연구에서 높은 결정수준을 보인 피험자들보다 보다 덜 신경증적이며 정신과적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정수준이 낮은 피험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향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들인 외향성,

새로운 경험에의 개방성, 쾌적함, 성실함 등과 같은 성향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본질에 관해 생각하게 해주고 그 결과 미결정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우유부단에 대한 상담계획에 대한 생각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은 성격이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미결정에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낳는다.

진로의사결정에는 특정흥미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 결정, 평가 그리고 대안선정 및 결정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등의 하위문제가 포함된다. 주요 진로미결정척도 내용은 이런 문제영역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차별화된 진단’을 제공할 수 있고 진로미결정 문제는 개개인 고유의 특정한 문제에 상세하게 관련된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측정도구인 Taylor와 Betz(1993)의 CDMSE(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는 내담자에게 결핍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을 명료화하게 해주며, 내담자의 진로결정상태의 추후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특정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내담자의 의사결정기술과 진로상담간의 차이를 명료화하는 데 유용하다.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 efficacy) 역시 진로미결정 해결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Osipow, Temple과 Rooney(1993)의 진로자기효능감척도(The Task Specific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TSOSS)는 진로와 관련된 네 영역 각각에 대해 자기보고식 자기효능감 수준을 명료화 한다.

이 네 영역에 대한 자기보고식 장점과 약점이 명료화 되면 상담자는 그들의 목표와 보다 많이 일치되도록 기대되는 내담자의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려 노력할 수 있다. 이 척도는 만일 선호하는 영역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불명확성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생각에 의해 의사결정이 방해받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이 깊다.

3. 가족체계와 진로결정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개인의 진로선택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초기의 이론들(Bordin, Nachmann, & Segal, 1963; Roc, 1956)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많은 직업 심리학자들(Bratcher, 1982; Lopez & Andrews, 1987; Zingaro, 1983)이 진로 발달 이해의 수단으로 가족체계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체계적 관점이 가족 관계 연구와 가족 치료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가족체계와 진로 선택 및 결정과 연구는 소수의 경험적 연구들만이 가족체계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진로와 관련된 예언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김봉환, 1997).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실제로 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한승희, 1992)에 의하면, 진로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주체는 어른들(특히 부모와 교사)이라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형태를 밝힌 Sprintal과 Mosher(1969)의 연구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진로 결정의 주체가 아이들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한승희, 1992. 재인용).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네 가지 범주로 진로결정 양태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각각 제1단계(충동적, 운명적), 제2단계(타인의 지시에 순응), 제3단계(합리적 의사결정), 제4단계(분석적 창의적 결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진로 결정 양태는 아이들의 진로를 실제로 결정하는지의 문제 즉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진로 의사결정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거나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Watley, 1966). Slocum(1965)은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지각되는 대인 관계, 의사결정자의 참조 집단의 적절성 등을 들고 있다. 부모, 교사 및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은 사회적 배경 변인이나 지적 능력과 같은 변인들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 변인들은 교육 및 직업 포부의 변량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이다(Duncan, 1969; Majoribanks, 1987; Saha, 1982). Breton(1972), Kerr(1962), Picou와 Carter(1976), Punch와 Sheridan(1978), 강무섭과 박영숙(1984), 고영일(1978) 등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들이 교육이나 직업적 포부 및 직업 선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동안 지위 획득 모형에서는 대부분 부모, 교사나 친구가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Swell, 1970; Hout & Morgan, 1975). 그러나 Reitzes와 Mutra(198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한 타인 개개인의 영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로부터 받는 영향의 총량이다. 특히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은 승인된 행동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미결정과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Eigen, Hartman과 Hartman(1987)은 Olson, Sprenkle과 Russel(1979)의 가족기능 복합모형을 이용하여 결정그룹, 발달한 미결정그룹, 만성적 미결정그룹으로 분류한 대상자들을 표본으로 하여 가족 상호 작용 패턴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진로결정 수준은 가족 상호 작용 패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최초의 가설은 기각 되었으나 만성적 미결정과 낮은 적응성과 높은 응집성 혹은 높은 적응성, 낮은 응집성으로 특징지워진 가족 체계간에는 새로운 연

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구조적 가족이론을 토대로 한 Lopez와 Andrews(1987)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진로결정과정 중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진로미결정은 가족의 항상성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후기 청소년기의 정상적 발달 과업인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미결정을 경험했을 때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독립 수준은 초기 성인기의 진로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세대간 가족이론에서 도출된 예언을 검증한 Kinnier, Brigman과 Noble(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개별화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으로부터의 개별화 수준과 삼각화(triangulation)가 진로미결정의 예언 변량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enick와 Jepsen (1992)은 고등학교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은 가족 관계 및 유지 체계수준에서 진로정체감을 예언해주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에 관계된 변량보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Whiston(1996)이 가족 조직성과 통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여성들은 진로결정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진로영역에 대해 접근-접근 갈등을 갖는 그리고 진로결정에 대해 혼란과 산만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야기되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한혜준(199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가족응집성 수준이 중간 수준일수록 진로·취업문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지영(1995)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적응성과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가족적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직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여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자고등학교 3개교, 여자고등학교 3개교를 임의 표집하였다. 그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진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은 진로결정에 관한 깊이가 부족한 반면 3학년은 2학년보다 진로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6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600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9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96명 중 남학생은 205명이고 여학생은 191명이다.

2. 측정 도구

가. 가족체계유형 척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체계 유형 척도는 Olson 등(1989)이 개발한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시리즈를 김수연(1998)이 재구성한 것이다. 가족체계 유형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의 하위요인에서 나온 점수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설정한 기준점과 비교해서 결정

한다. 본래의 FACES에는 가족응집성을 유리, 분리, 연결, 속박으로 가족적응성은 경직, 구조화, 융통, 혼돈의 4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김수연(1998)은 가족응집성을 유리, 연결, 속박과 가족적응성을 경직, 융통, 혼돈 각 세 수준으로 재구성하였다. 총 문항수는 46문항으로 가족응집성이 24문항, 가족적응성이 22문항이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이다. 가족응집성 차원에서 유리와 속박의 점수가 낮을수록, 연결의 점수는 높을수록, 가족적응성 차원에서 경직과 혼돈의 점수가 낮을수록, 융통의 점수는 높을수록 가족이 잘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김수연(1998)에 의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가족응집성의 유리는 .81, 연결은 .78, 속박은 .68이었으며, 가족적응성의 경직은 .68, 융통은 .82, 혼돈은 .76이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신뢰도 계수는 가족응집성의 유리는 .77, 연결은 .81, 속박은 .74이었고, 가족적응성의 경직은 .79, 융통은 .80, 혼돈은 .78이었다.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의 하위척도별 해당 문항과 신뢰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의 하위척도별 해당 문항과 신뢰도

하위 척도	문항수	해당 문항 번호	신뢰도
응집성	유리	5	3, 9, 14, 15, 18
	연결	11	1, 4, 7, 10, 12, 13, 16, 17, 20, 21, 24
	속박	8	2, 5, 6, 8, 11, 19, 22, 23
적응성	경직	8	28, 30, 31, 33, 39, 40, 43, 44
	융통	7	26, 27, 29, 32, 35, 38, 42
	혼돈	7	25, 34, 36, 37, 41, 45, 46

나. 진로결정 수준 척도

진로결정 수준 검사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 그리고 Koschier(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문화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 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두 문항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의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체 조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며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채점은 김봉환(1997)과 이제경(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즉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지만,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 3-18의 경우는 역채점을 하였다.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번역본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86, 반분 신뢰도 .80, 검사-재검사 신뢰도 .79 등으로 보고하였고, 김봉환(1996)의 예비검사에서도 Cronbach α .86, 반분 신뢰도 .80, 거트만 반분계수 .80 등으로 나타나 고향자(1992)의 검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사 결과는 .91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검사의 실시는 먼저 표집 대상 학교별로 검사 협조자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사 실시에 관한 주의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검사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4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부산시내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10여 명의 도움을 받아 본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검사지에는 검사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다. 검사의 순서는 성별, 학교, 계열을 먼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체계유형 척도, 진로미결정 척도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검사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분 ~ 30분 정도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1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단별 통계적 기초 지표인 산술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 이원변량분석, Duncan 사후검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치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결과

가. 가족응집성 · 적응성 ·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 분포

아래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응집성, 적응성, 가족체계 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 분포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표 2>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점수를 원점수 및 7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남녀 학생별로 하위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유형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남녀 모두에게서 응집성에서는 연결형, 적응성에서는 융통형이 가장 높은 사례수와 비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속박형과, 혼돈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2>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점수 분포

구분	성별	하위요인	원점수 기준		7점 만점 기준		유형별 분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N	%
가족 응집성	남학생 (N=205)	유리	15.70	5.69	3.14	1.13	34	16.6
		연결	47.44	9.31	4.31	.84	139	67.8
		속박	25.36	7.60	3.17	.95	32	15.6
	여학생 (N=192)	유리	14.22	5.45	2.84	1.09	13	6.8
		연결	47.30	10.36	4.30	.94	145	75.5
		속박	24.60	6.90	3.07	.86	34	17.7
가족 적응성	남학생 (N=208)	경직	26.68	8.59	3.33	1.07	48	23.1
		융통	31.94	6.81	4.56	.97	145	69.7
		혼돈	23.78	7.47	3.39	1.06	15	7.2
	여학생 (N=193)	경직	24.20	6.96	3.02	.87	31	16.1
		융통	31.37	6.97	4.48	.97	148	76.7
		혼돈	22.85	6.98	3.26	.99	14	7.2

<표 3>은 <표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수연(1998)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남녀 학생별로 가족체계 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3> 가족체계 유형별 분포

성별	균형잡힌 가족		중간수준 가족		극단적 가족		전체	
	N	%	N	%	N	%	N	%
남학생	119	58.0	45	22.0	41	20.0	205	51.76
여학생	133	69.6	25	13.1	33	17.3	191	48.23
전체	252	63.6	70	17.7	74	18.7	396	100.00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 학생 모두 균형잡힌 가족체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간 수준의 가족체계 유형과 극단적 가족체계 유형간의 비율은 남녀 학생 각각에서 상호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균형잡힌 가족체계 유형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높으며, 중간수준 및 극단적 수준의 가족체계 유형은 남학생에게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는 본 연구의 종속 변인에 속하는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확신 수준에 대한 남녀 학생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인 평균 점수의 수준으로 볼 때, 진로확신 수준의 경우 남학생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남녀별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확신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성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결정수준	70.70	20.37	68.29	17.54	69.55	19.07
진로확신수준	9.82	3.29	8.86	3.09	9.36	3.23

나. 가족 응집성 유형과 성별과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연구문제 1>의 ‘고등학생의 가족 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응집성 유형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및 사후검증 결과,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차례로 <표 5>, <표 6>, [그림 1], [그림 2]와 같다.

먼저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 수준은 가족응집성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 및 성별과 가족 응집성 유형과의 상호 작용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확신 수준은 주효과 및 상호 작용 효과 모두가 .05의 유의도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표 6>의 Duncan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 진로결정 수준의 경우 연결된 가족 유형 집단이 유리, 속박 집단에 비하여 보다 높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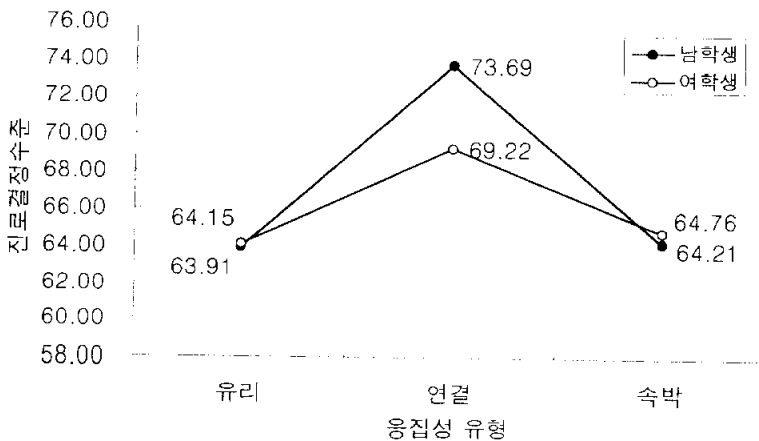
<표 5> 성별×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진로결정 수준	응집유형	3866.97	2	1933.48	5.44	.005
	성별	75.15	1	75.15	.21	.646
	응집유형×성별	458.37	2	229.18	.64	.525
	오차	138904.29	391			
진로확신 수준	응집유형	20.31	2	10.15	.98	.373
	성별	12.71	1	12.71	1.23	.267
	응집유형×성별	26.06	2	13.03	1.26	.282
	오차	4015.65	391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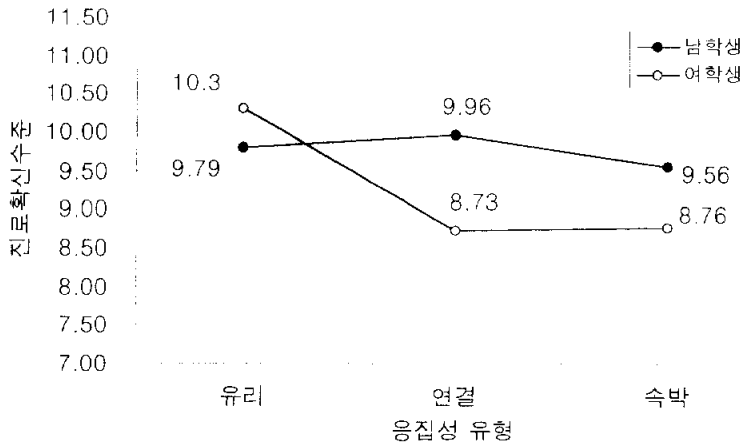
<표 6> 성별과 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종속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uncan ($\alpha=.05$)
진로결정 수준	응집유형	가족 유리	47	63.97	20.79	유리-속박 <연결
		가족 연결	284	71.41	18.67	
		가족 속박	66	64.50	18.27	
	성별	남학생	205	70.59	20.50	남 = 여
		여학생	192	68.08	17.43	
진로확신 수준	응집유형	가족 유리	47	9.93	3.08	유리=속박 =연결
		가족 연결	284	9.33	3.25	
		가족 속박	66	9.15	3.28	
	성별	남학생	205	9.87	3.30	남 = 여
		여학생	192	8.84	3.08	

[그림 1]과 [그림 2]는 이러한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 수준의 점수는 유리된 집단과 속박 집단에 비하여 연결된 집단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보다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성별과 가족 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



[그림 2] 성별과 가족 응집성 유형에 따른 진로확신 수준

한편 [그림 2]의 진로확신 수준에 대한 그래프는 남녀별 차이를 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연결형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진로확신 수준을 보임에 비하여 여학생은 유리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 가족 적응성 유형과 성별과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연구문제 2>의 ‘고등학생의 가족 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적응성 유형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및 사후검증 결과,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차례로 <표 7>, <표 8>,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먼저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 수준은 가족적응성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 및 성별과 가족 적응성 유형과의 상호 작용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확신 수준은 주효과 및 상호 작용 효과 모두가 없었다.

<표 7> 성별×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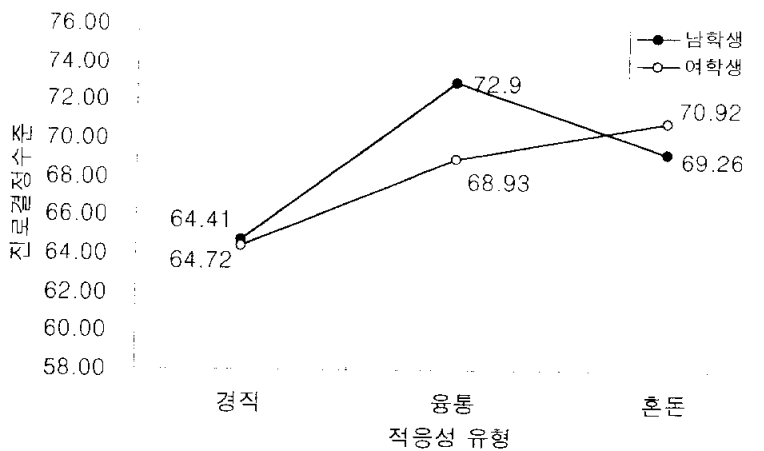
종속변인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진로결정 수준	적응유형	2420.33	2	1210.16	3.34	.036
	성별	33.31	1	33.31	.09	.762
	적응유형×성별	359.87	2	179.93	.49	.608
	오차	142873.99	395	361.70		
진로확신 수준	적응유형	22.25	2	11.12	1.08	.338
	성별	6.21	1	6.21	.60	.436
	적응유형×성별	32.78	2	16.39	1.60	.203
	오차	4045.19	395	10.24		

<표 8> 성별과 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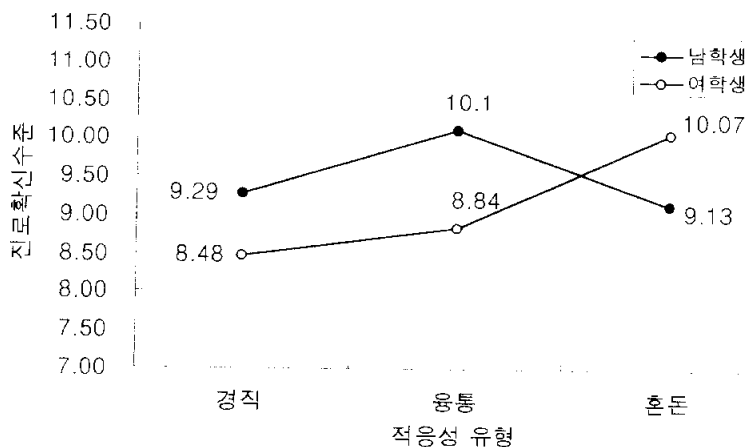
종속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uncan ($\alpha=.05$)
진로결정 수준	적응유형	가족 경직	79	64.60	20.21	경직<융통 =혼돈
		가족 융통	293	70.90	18.88	
		가족 혼돈	29	70.06	16.99	
	성별	남학생	208	70.75	20.46	남 = 여
		여학생	193	68.35	17.56	
진로확신 수준	적응유형	가족 경직	79	8.97	3.40	경직=융통 =혼돈
		가족 융통	293	9.46	3.24	
		가족 혼돈	29	9.58	2.65	
	성별	남학생	208	9.84	3.30	남 = 여
		여학생	193	8.87	3.09	

<표 8>의 Duncan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 수준은 융통 및 혼돈 집단이 경직 집단에 비하여 높음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그림 4]는 적어도 경향상으로 남녀간에 이러한 관계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확신 수준 모두에서 융통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 혼돈된 집단이 가장 높은 진로결정 수준 및 확신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성별과 가족 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



[그림 4] 성별과 가족 적응성 유형에 따른 진로확신 수준

이러한 경향은 앞선 응집성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별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은 부분적으로 상호 작용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라. 가족 체계 유형과 성별과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연구문제 3>의 ‘고등학생의 가족 체계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가족 체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및 사후 검증 결과,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차례로 <표 9>, <표 10>, [그림5], [그림 6]과 같다.

먼저 <표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 수준은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 및 성별과 가족체계 유형과의 상호 작용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확신 수준은 주효과 및 상호 작용 효과 모두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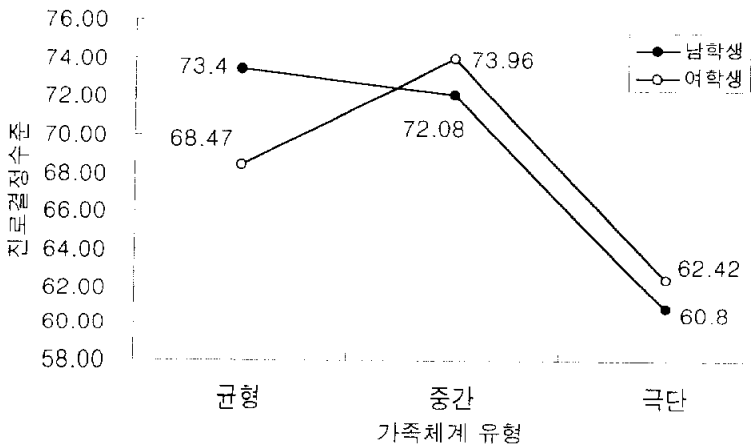
<표 9> 성별×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진로결정 수준	체계유형	5865.63	2	2932.81	8.36	.000
	성별	15.59	1	15.59	.04	.833
	체계유형×성별	987.58	2	493.79	1.40	.246
	오차	136792.90	390	350.75		
진로확신 수준	체계유형	30.94	2	15.47	1.51	.222
	성별	30.04	1	30.04	2.93	.088
	체계유형×성별	22.66	2	11.33	1.10	.332
	오차	3996.19	390	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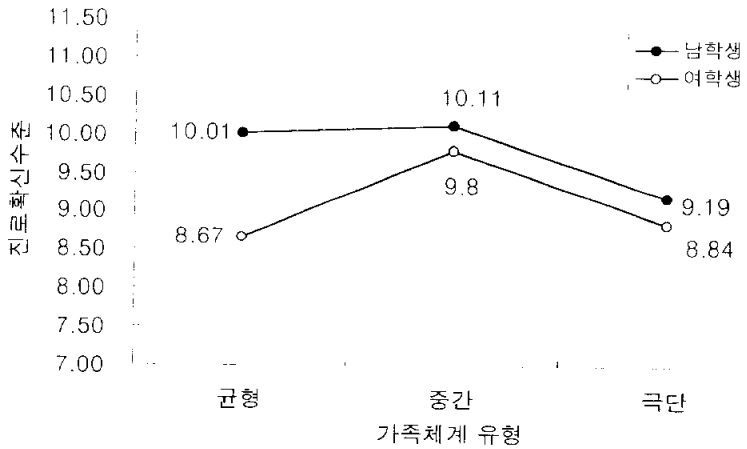
<표 10> 성별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종속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uncan ($\alpha=.05$)
진로결정 수준	체계유형	균형 가족	252	70.80	18.13	균형=중간 > 극단
		중간 수준	70	72.75	22.67	
		극단 가족	74	61.52	19.11	
	성별	남학생	205	70.59	20.50	남=여
		여학생	191	68.14	17.46	
진로확신 수준	체계유형	균형 가족	252	9.30	3.22	균형=중간 =극단
		중간 수준	70	10.00	3.39	
		극단 가족	74	9.04	3.10	
	성별	남학생	205	9.87	3.30	남=여
		여학생	191	8.85	3.09	

<표 10>의 Duncan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 수준은 균형 및 중간 수준의 집단이 극단 수준의 가족체계 유형 집단에 비하여 높음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 5] 성별과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



[그림 6] 성별과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진로확신 수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 수준에서 극단 수준의 체계 유형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는 진로결정 수준이 균형 혹은 중간 수준의 집단에 비하여 한결같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의 그래프는 진로확신 수준이 중간 수준의 가족체계 유형 집단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모든 가족체계의 유형에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확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논의

진술된 연구 결과를 다른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성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결된 집단의 고등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속박된 가족의 대학생들이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신영규, 199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Smith, 1985), 가족관계가 연결된 집단이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박지영(1995)의 연구 결과와 연결 집단의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이 가장 낮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아서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응 정도가 높다는 연구(전귀연, 1993)와 연결된 집단이 가족 기능에 가장 효과적이며 청소년 문제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Reiss, 1971; Stierlin, 1974; Barnes & Olson, 1985)와는 일치한다.

둘째, 가족적응성은 남학생의 경우는 융통된 집단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혼돈된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는 융통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전귀연, 1993)와 일치하며, 후자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국향, 1992), 자아중심성(김인경, 1993)이 높아진다는 연구나 적응성이 매우 높은 혼돈된 가족의 대학생들이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신영규,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이 진로결정에 수반되는 불안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유의한 점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Niece & Bradley, 1979; Osipow, Carney & Barak, 1976; Santos & Coimbra, 2000; 고향자, 1992) 및 Taylor(1979)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는 Westbrook, Sanford, O'Neal, Horne, Fleenor과 Garren(1985)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수준에서의 성차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신의 가족체계를 중간 가족이라고 지각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균형잡힌 가족이나 극단 가족이라고 지각한 고등학생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중간범위 가족, 균형잡힌 가족, 극단 가족 순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신영규, 1994)와 일치한다. 그러나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균형잡힌 가족, 중간범위 가족, 극단 가족 순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높아진다는 연구(임용우, 1984)나 가출 소녀 가족이 중간 범위 가족이나 극단 가족 비율이 높으며 비가출 소녀의 가족은 균형잡힌 가족의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도수경, 1990), 일반 청소년 가족에서는 균형잡힌 가족이 많고 문제 청소년 가족에서는 중간 범위 가족이나 극단 가족이 많았다는 결과(Bell, 1982;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델을 측정하는 척도와 관련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들 대부분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로, FACESⅡ나 FACESⅢ 척도가 선형적임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연구들에서는 곡선성을 내포한 복잡순환모델의 가설과는 다르게 응집성, 적응성

과 관련된 가족기능을 직선적 관계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연(1998)은 연구 결과가 직선적으로 나온 이유로 FACESⅡ나 FACESⅢ가 과다한 극단적 수준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도구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FACESⅡ나 FACESⅢ를 이용한 연구들은 직선성을 전제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높은 점수는 속박과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연결적인, 매우 융통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미국 가족 문화를 토대로 구성된 FACES시리즈를 한국 가족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았던 점을 상기할 때, 가족간 친밀감, 일체감, 가족이 함께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경향 등과 같은 한국 가족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에게 적용,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중 가족적응성이 가족응집성보다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적응성의 개념이 상황적 또는 발달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임을 상기할 때,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응집성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족적응성 차원이 더 적절한 기능을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가족체계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수준과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수준과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삼아 지역별, 계열별(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성별로 임의 표집하였으며 전체 표본수는 396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연구 도구는, 가족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Olson 등(1985)이 제작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시리즈를 김수연(1999)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Osipow 등(1976)이 개발한 CDS(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WIN(Ver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을 위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에 관련되는 통계적 기초 자료인 산술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각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든 가설은 유의수준 '.05' 이하에서 이원변량분석, 사후검증(Duncan)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응집성 수준이 연결된 집단이 유리된 집단이나 속박된 집단에 비하여 보다 높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하였다. 진로확신 수준은 남학생의 경우 연결된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유리된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확신 수준 모두에서 융통된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혼돈된 집단이 가장 높은 진로결정 수준 및 확신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은 부분적으로 상호 작용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진로확신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유형이 극단에 속하는 집단은 남녀 학생 모두 진로결정 수준이 균형 혹은 중간 수준의 집단에 비하여 한결같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성별은 가족체계 유형과 어느 정도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확신 수준은 중간 수준의 가족체계 유형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모든 가족체계의 유형에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확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가족을 연결된 집단이라고 지각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유리된 집단이나 속박된 집단으로 지각한 고등학생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가족을 융통적 집단이라고 지각한 남자 고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경직된 집단이나 혼돈된 집단으로 지각한 남자 고등학생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가족을 중간 범위 집단이라고 지각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극단적 집단으로 지각한 고등학생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의 실제에서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고등학교 학생 집단에까지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가족체계 유형별 사례수 간에 차이가 많아 객관화하기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체계 유형 검사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만 보았을 뿐 부모나 형제들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은 다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체계 유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진로결정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진로 상담 장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진로결정 수준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도구 개발 및 연구와 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부섭·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분석**. 서울: 교육개발원.
- 강선영(1996). **아이덴티티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김봉환(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경(2002).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8). **가족 사정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순환 모델 척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 모델의 선형성 대 곡선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수진(1997).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 및 가족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2000).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2000).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은영(199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김진희(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도수경(1990). **가출 경험 소녀와 비가출 경험 소녀간의 가족 관계 연구 -순환 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임(2002).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승태(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21-124.
- 박지영(1995).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순란(199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규(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윤순임(1995). **현대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광찬(1998).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 경영**, 12(7), 46-50.
- 이국향(199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한종철(1997).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통합에 대한 학교심리학적 봉사의 역할 고찰**, **연세교육과학**, 46, 201-204.
- 이재창(1994). **생활지도**. 서울:문음사.
- 이재창(1998). **진로 교육과 직업진로지도의 문제점 및 산학 연계 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지: 진로교육연구** 9, 45-74.
-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성운사.
- 이혜성·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0, 143-166.

- 이희영(1999). 가족체제이론과 진로발달- 현황과 후속 연구방향. 부산교육 심리학회지: 3, 99-107.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 157-173.
-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2002). 대학생 생활 실태.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귀영·박미진·변희준(2001). 학생생활 연구, 15,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미석(1999)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지, 오늘의 청소년, 145, 26-30.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2).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 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탁진국(2000). 심리검사. 서울: 학지사.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 아동학회지, 14, 145-160.
- 한승희(1992). 교사의 비공식조직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준(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kerman, N. W.(1958).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 New york: Basic Books.
- Allen, S. F. & Stoltenberg, C. D. (1995). Psychological separati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542-546.
- Beavers, J.,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1986). Coping in families with a retarded child. *Family process*, 24, 398-405.
- Beavers, W . R.(1997). *Psychotherapy and growth: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 Bertalanffy. L. von.(1968). *General systems theory: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Brazikkier.
- Bloom, M. V.(1980). *Adolescent-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ner Press.
-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lustein, D. L., Walbridge M.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rdin, E. S., & Kopplin, D. A.(1973). Motivational conflict and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154-161.
- Bowen, M.(1986).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Bratcher, W. E.(1982).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career select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87-91.

- Broderick, C. B., & Smith, J.(1979).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 Free Press.
- Campbell, R. E., & Cellini, J. V.(1981). A diagnostic taxonomy of adult career proble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175-190.
- Carter, E., & McGoldrick, M.(Eds.)(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Chartrand, J. M., & Robbins, S. B.(1990). Using multidimensional career decision instruments to assess career decidedness and implementa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66-177.
- Conger, J. J. & Peterson, A. C.(1984). *Adolescence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 Cooper, S. E., Fuqua, D. R., & Hartman, B. W.(1984). The Relationship of trait indecisiveness to vocational un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353-356.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Eigen, C. A., Hartman, B. W., & Hartman, P. T.(1987). *Relations between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areer indecision*. *Psychological Reports*, 60, 87-94.
- Elson, N.(1964). The reactive impact of adolescent and family upon each other in separ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of child Psychiatry*, 3, 669-708.
- Fouad, N. A.(1994). Annual review 1991-1993: Vocational choice, Decision-mak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125-176.

- Frank, S. J., Avery, C. B., & Laman, M. S.(1990). Youth adults ' perception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 Psychology*, 24, 729-737.
-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1991). *Family therapy an overview(3r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Goodstein, L. D.(1965). Behavior theoretical views of counseling. In B. Steffle(Ed.), *Theories of counseling*, 140-192. New York: McGraw-Hill.
- Hackett, G.(1993). Caree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alse dichotomies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105-117.
- Harren, V. A.(1976). *Preliminary manual for interpretation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Form B)*.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Hartman, B. W.(1990). Endless unacceptable alternatives: The case of Sondra.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40-43.
- Herr, E. L., & Lear, P. B.(1984). *The family as an influence on career deleopment. Family Therapy Collections*, 10, 1-15.
- Hess, R. D., & Handel, G.(1967). The family as psychological organization. In G. Handel(Ed.), *The psychosocial interior of the famil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ce form the par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land, J. L., & Holland, J. E.(199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404-414.
- Jackson, D. D.(1965). The study of the family. *Family Process*, 4, 1-20.
- Johnson, D. P.(1990). Indecisiveness: A dynamic, integrative approach.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34-39.
- Kantor, D., & Lehr, W.(1975).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Bass.
- Kathleen, M, W(1994). *Career indecision and perceptions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mong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Pittsburgh.
- Kinnier, R. T., Brigman, S. L., & F. C.(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309-312.
- Lec,C.C., Hollander,E.K., & Krupsaw,M.,(1986); *Predicting the career choic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rest and ability in science and mathematics*. Washington, DC: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wis, D. M., & Savicks, M. L.(1995). Validity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44-56.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52-56.
- Lucas, M. S.(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iller, R. G.(1971).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human performance: Design of a systems task vocabulary*. Silver Spring, MD: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re, D.(1987). Parent 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8-307.
- Nichols, M. P.(1987). The self in the system: *Expanding the limits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er/Mazel.
- Niece, D., & Bradley, R. W.(1979). Relationship of age, sex and educational groups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71-278.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 C. 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of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es*, 18, 3-28.
- Osipow, S. H.(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Penick, N. I., & Jepsen, D. A.(1992).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208-222.
- Peterson, N. and Gonzalez, R. C.(2000). *The role of work in people's lives*. Californi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Rice, K. G.(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213.
- Roe, A.(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Wiley.
- Rosenblatt, P. C., & Titus, S. L.(1976). *Together and apartness in the family*. *Humanities*, 12, 367-379.
- Salomone, P. R.(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antos, P. J. & Coimbra, J. L.(2000).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46-362.
- Schulenberg, J. E., Vondracek, F. W., & Crouter, A. C.(198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29-143.
- Slaney, R. B.(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pp. 33-76. Hillsdale, NJ: Erlbaum.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nsley, H. E. A.(1992).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09-211.
- Tyler, L. E.(1961). *The work of the counselor(2nd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Wechter, S.(1983). Separation difficulties between parent and young adult. *Social Casework*, 64, 97-104.
- Westbrook, B. W., Sanford, E. E., O'Neal, P., Horne, D. F., Fleenor, J., & Garren, R.(1985).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38-335.
- Whiston, S. C.(1996).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interactions patterns and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in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3, 137-149.
- Zingaro, J. C.(1983). A family systems approach for the career counselor.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4-27.

부 록

측정 도구 (검사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유형과 진로결정에 관한 관계」 연구를 위해 작성된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주시는 한 문항, 한 문항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각 문항마다 평소 느끼시던 바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절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오로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질문지에 직접 표기해 주십시오. 응답요령은 각 질문지의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문영란

● 성별 : 남() 여()

● 학교 : () 고등학교

● 계열 : 인문계() 자연계()

● 학년 : (2)학년

※ 응답요령 : 해당되는 곳에 O표나 V표를 해 주십시오.

부 록 I - 가족체계유형 검사

※ 다음은 가족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 ~ 7 중의 하나에 O표 해 주십시오.

가 족 생 활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
1.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지만 각자의 사생활과 개성을 존중해 준다.							
2. 우리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가족이 함께 있을 때조차도 거의 친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4.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가족 중 한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도 모두 따라서 그렇게 된다.							
6.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너무 의지한다.							
7.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과 함께 활동(여가생활, 집안청소)하기를 좋아한다.							
8. 우리는 가족이 가족 외의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 속이 상한다.							
9. 우리 가족은 집에서 서로 대하기 싫어한다.							
10.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좋은 친구로 인정 한다.							
11.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12. 우리 가족은 자신의 일을 결정 할 때, 가족과 상의한다.							
13. 우리 가족은 가족이 내린 결정을 잘 따른다.							
14.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 쓴다.							
15.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보다 가족 외의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더 편하다.							

가 족 생 활	전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
16. 우리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 (여가 생활이나 취미 활동)이나 이야기 꺼리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17. 우리 가족은 행사가 있을 때 모두 모이는 편이다.								
18.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낸다.								
19. 우리 가족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20.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21. 우리 가족은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다.								
22.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든다.								
23. 우리 가족은 지나치게 서로 매여 있는 것 같다.								
24. 우리 가족에게는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5. 우리 가족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								
26. 우리 가족에서는 자녀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7.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자녀들도 의견을 이야기 하는 편이다.								
28. 우리 가족에서는 한 사람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다.								
29. 우리 가족은 문제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한다.								
30. 일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뿐이며 다른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								

가 족 생 활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
31. 우리 가족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32. 우리 가족의 규칙은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							
33. 우리 가족에서는 규칙을 어겼을 때 엄한 벌이 뒤따른다.							
34. 우리 가족은 전혀 기강이 잡혀있지 않다.							
35. 우리 가족은 집안 일을 나누어서 하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							
36. 우리 가족에서는 집안 일의 책임 소재가 분명 하지 않다.							
37. 우리 가족은 가족문제에 관하여 서로 논쟁을 하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38.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결정된 해결책에 만족한다.							
39. 우리 가족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40. 우리는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사정이야 어떠하든 변명할 기회도 없이) 가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다.							
41. 우리 가족에서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가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칭찬과 벌이 분명치 않다.							
42.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3. 우리 가족에서 무엇을 하고자 한 번 계획하였다면 그것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44. 우리 가족은 너무 조직적이고 딱딱하다.							
45.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어 혼란스럽다.							
46. 우리 가족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없다.							

부 록 II - 진로결정 수준 검사

※ 다음은 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 ~ 7 중의 하나에 O표 해 주십시오.

가 족 생 활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진로를 수행해 나갈 지를 알고 있다.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 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____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6. 나는 ____이(가) 되고 싶지만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7. 지금까지 나는 진로 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향이 별로 없고,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가 족 생 활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 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게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른다.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14. 나는 나의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미래의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6. 나는 진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_____이(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